

제 목	말차에 대하여		
소속 대학	한림대학교	소속 학과	화학과
학 번	2021****	이 름	박**

2009년 여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회관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차로 10분 정도 더 들어가야 하는 진짜 숲속이었다. 집 뒤편엔 감귤나무가 있었고, 앞과 옆에는 내 키의 10배는 되어 보이는 길쭉한 나무들만 가득 했다. 덤긴 했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고, 대낮의 나를 반겨준 건 귀를 찌를 듯한 매미 소리와 새 소리, 풀벌레 소리 정도였다. 밤이 되면 온갖 벌레들이 다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자랑할 만한 건 당시 내 손바닥만 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작았던 장수풍뎅이었다. 26살이 된 지금까지도 제주도 이후로 야생 장수풍뎅이를 본 적이 없다.

야생의 장수풍뎅이는 날아오를 때 정말 헬리콥터 같은 소리가 난다.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때는 미치도록 좋아했던 벌레였기에 8살의 나는 무척 행복했다.

그곳은 가시리 깊숙한 곳에 있던 이모의 집이었다. 이모는 5년, 어쩌면 그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셨고, 방학 때만 되면 늘 가곤 했던 그곳은 8살 어린이의 꿈 같은 공간이었다. 자다가 벌레가 나오는 건 일상이었고, 샤워하다가 지네가 나오는 것도 당연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며 살아갔던 제주 생활이었다. 곤충을 그렇게 좋아했던 어린 나에게서는 이보다 더한 천국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한 기억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습관들 중 지금까지도 내 삶에 영향을 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녹차다.

옐로우 브랜드에서 파는 달달한 녹차 말고, 진짜 씹쌀하면서도 진득한 맛이 나는 녹차 말이다. 나는 이 녹차를 정말 좋아한다. 진짜 좋은 녹차를 마실 때면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전율을 느낀다.

“이런 게 진짜 녹차지.”

그리고 녹차를 넘어 말차, 마지막 단계인 호지차까지 좋아하게 되면 내 기준에서는 진짜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준다. 물론 “네가 뭔데 인정하냐”라는 반박은 받지 않겠다. 내가 짱이니까.

이 녹차를 처음 접한 곳은 가시리 마을회관 옆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였다. 처음부터 차로 접한 건 아니었다. 8살 꼬맹이가 씹쓸한 녹차를 좋아하긴 쉽지 않았을 테니까. 당시 그 가게에서는 얼굴만 한 대접에 녹차 아이스크림을 담아주셨는데, 이모와 친분이 깊으셨던 사장님 덕분에 갈 때마다 한 바가지씩 먹곤 했다.

“겨우 그걸로 녹차에 입문했다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녹차 아이스크림의 맛을 뛰어넘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 맛을 찾기 위해 전국을 꽤 돌아다녔지만 아직도 실패 중이다. 물론 맛에 대한 여행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나를 미식가라서 찾기 전까지는 포기 못 한다.

아무튼 그때 배탈이 정말 자주 났던 기억이 난다. 생각해보면 8살짜리가 매일 아이스크림을

한 대접씩 먹는데 배탈이 안 나는 게 더 이상했을지도 모른다. 생애 첫 오픈런도 그때 했다. 녹차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마을회관까지 뛰어갔으니까. 아마 거기서 내가 제일 어린 손님이었을 거다. 그래서인지 주변 어른들이 한 손갈이라도 더 주시려고 하고 예뻐해주셨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그렇게 녹차를 처음 접한 뒤로 녹차라떼, 녹차 아이스크림, 말차 디저트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26살이 된 지금은 진득한 말차와 끝판왕 호지차까지 즐기는 사람이 되었다.

따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하도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녹차, 말차, 호지차는 모두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차나무에서 나온다. 단지 가공 방식이 다를 뿐이다. 약간 명태, 생태, 동태, 황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우선 녹차는 일반적으로 재배한 찻잎을 찌서 만든다. 보통 잎을 그대로 우려 마시며 맑은 노란빛을 띠는 차가 대표적이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마시는 차 중 유일하게 냉차로도 즐기는 차다.

말차는 조금 다르다. 햇빛을 차단한 환경에서 어린 잎을 키운 뒤 찌서 말리고 곱게 간다. 잎을 우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가루 자체를 물에 타 마시는 형태라 훨씬 진하고 묵직한 맛이 난다. 최근에는 말차라떼를 자주 마시는데, 말차 자체보다 디저트 형태로 더 많이 접하는 편이다. 오늘도 스타벅스에서 제주 말차라떼를 마시고 왔는데, 싹쌀한 말차를 좋아한다면 시럽을 한 번만 넣거나 아예 빼고 마시는 걸 추천한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

마지막으로 호지차는 녹차용 찻잎을 커피 원두처럼 강하게 로스팅해 만든 차다. 구수한 향이 정말 좋고, 로스팅 과정에서 카페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비교적 편하게 마실 수 있다. 다만 녹차나 말차보다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편이다. 한동안은 강한 마니아층만 즐기던 차였는데, 최근에는 카페 메뉴로도 자주 등장하면서 인기가 꽤 많아졌다. 차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셋 중 호지차가 1등이다.

나는 지금도 서울뿐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 싹쌀한 맛을 찾고 있다. 말차로 유명한 교토에도 다녀왔지만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맛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다. 요즘은 마음에 드는 집들이 몇 군데 생겨서 시간 날 때마다 한 잔씩 마시러 간다.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면, 그 아이스크림 가게는 조금 더 특별했다. 가게 앞에는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아마 리트리버였던 것 같다. 당시 내 덩치와 비슷할 정도로 컸지만 붙임성도 좋고 엄청 귀여웠다. 그런데 가끔 여름에 매미를 먹는 기이한 행동을 했다. 마을 어른들이 화내면서 입에 손을 넣어 매미를 빼내곤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꽤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당시 나는 벌레를 거의 사랑하는 수준이었기에 죽이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벌레가 보이면 잡아서 밖에 놔줬지 죽인 적은 거의 없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벌레가 나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잡아서 창밖으로 보내준다. 마음속 깊은 곳에 곤충박사의 꿈이 아직 남아 있긴 한데, 그 꿈이 다시 꺼내질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 개도 녹차를 엄청 좋아했다. 신기한 건 녹차잎을 가져다주면 먹지는 않고 코를 문지르기만 했다는 점이다. 개조차 녹차 향을 아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맛없어서 안 먹은 건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건 개도 인정하는 맛집이었다는 거다.

조심스럽게 추천해보자면, 생각보다 스타벅스의 말차라떼는 괜찮다. 단, 시럽을 빼야 한다. 그대로 마시면 너무 달아서 말차 특유의 싹쌀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은 잘

안 보이지만 버블티로 유명했던 브랜드 아마스빈의 녹차라떼도 꽤 맛있었다. 나는 펄을 안 좋아해서 빼고 마셨지만 나름 괜찮았다. 또 슈퍼말차도 정말 좋아하는 말차 브랜드다. 특히 성수동 매장을 자주 가는데 깊고 진한 맛을 잘 살린 녹차라떼를 만들어준다. 물론 종로, 을지로, 잠실, 천호 등 나만의 리스트에 올라간 말차집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공유하기엔 조금 아쉬우니 다음 기회로 남겨두겠다.

18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먹게 될 음식을 제주도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때 찾았다는 게 나름 신기하고 고맙다. 정말 내게는 만능 음식 같은 존재니까.

화가 나도, 슬퍼도, 기뻐도, 우울해도, 졸려도, 신나도, 배고파도, 번아웃이 와도, 슬럼프가 와도, 돈이 없어도, 아파도 말차는 먹는다.

그게 내 인생이고, 그게 내 사랑이니까.